

편집의 글(editorial review)

---

동아시아 수자원개발의 정치생태학

Political Ecology of Water Resource Development in East Asia

이상헌\*

《공간과 사회》 2019년 3월호는 ‘동아시아 수자원개발의 정치생태학’을 특집 주제로 하였다. 동아시아는 식민주의, 냉전 이데올로기, 전쟁 등의 역사적 상처가 깊어 쌓여 있는 지역이며, 그간 발전주의 이데올로기를 필연적인 운명으로 간주하고 총력전을 벌이듯이 발전을 추구해왔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냉전 구도 속에서 적대시되었지만, 두 체제 모두 공히 경제성장을 국가의 제일 과제로 삼았으며, 유사하게도 공업화와 도시화를 통해 발전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물은 ‘수자원’으로 바뀌어서 공업화와 도시화를 가능하게 하는 필수 자원으로 인식되었고, 강은 국가 발전에 필요한 용수를 공급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 국가 주도 수자원개발의 대표적인 사례가 대형댐 건설이다. 전력 생산, 용수 공급, 홍수 조절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진 대형댐 건설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국가적으로 국위를 과시하는 동시에 국가 발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물리적 구조물이었다. 국가의 주요

---

\* 한신대학교 평화교양대학 부교수(sanghunlee65@gmail.com)

하천에는 대형 댐들이 건설되었고, 보를 비롯해 다양한 형태의 구조물들이 건설되었다. 구불구불했던 하천은 홍수가 날 때 배수를 위해 반듯하게 정비되었고, 하천 주변에는 고수부지와 간선도로가 만들어졌다. 하천 정비 과정에서 나온 흙과 모래를 하천 주변에 쌓아서 싼 값에 택지를 조성하고, 거기에는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함으로써 자본을 축적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댐건설 추진과 하천 개발 및 정비 과정의 주체와 이데올로기, 토건적 자본축적 방식, 이에 대한 비판과 이로 인한 다양한 사회경제적, 생태적 영향들을 분석하는 것은 정치생태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연구주제이다.

이번 특집호에는 총 세 편의 논문이 수록되었다. 박철현의 논문 「다큐멘터리 <다싼샤(大三峽)>와 현대 중국의 하이모더니즘」은 중국의 발전모델을 이데올로기 차원에서 분석한 연구이다. 중국의 발전 모델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연구는 상당수 있지만, 이데올로기 차원에서 분석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창의성이 돋보인다. 또한 중국 발전모델을 수자원개발의 대표적인 사례인 삼협댐 건설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통해 분석한 점도 흥미롭다. 저자는 “댐에 관한 ‘이미지’는… 국가권력의 역량을 사회에 투사하는 이데올로기의 역할을 한다. 즉 댐의 설계와 건설은 물론, 수물(水洩), 이민(移民), 생태환경, 문화재, 경제적 효과 등에 관한 다양한 ‘이미지’는, 댐의 물리적 속성을 초월하는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지닌다”고 주장하면서 “개혁기 중국 발전모델의 이데올로기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로서 댐 ‘이미지’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 주목하는 하이모더니즘은 “국가 주도의 사회공학적 기획, 전문가적 과학지식에 대한 신뢰, 총력 동원, 속도전, 열정과 강제의 혼합” 등의 특징을 가진다. 저자는 싼샤 댐 건설이 중국 발전모델이 지닌 하이모더니즘 이데올로기를 보여준다고 주장하면서, CCTV(China Central Television: 중국 중앙 텔레비전)가 방영한 6부작 다큐멘터리 <다싼샤(大三峽)>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저자가 보기에 이러한 다큐멘터리가 제작된 배경은 기존 중국 발전 모델이

한계를 드러내어 빈부 격차, 도농 격차, 지역 격차 등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이를 대체할 새로운 발전 모델이 필요했던 상황이었다. 당시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은 새로운 “발전모델의 ‘이념’으로서 ‘조화사회(和諧社會)’를 목표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이론적 전략으로서 ‘과학발전관(科學發展觀)’을 제기하기 시작하는데, <다산사>에는 후진타오 시기 제기된 이러한 발전모델의 이데올로기가 썬샤담과 관련하여 투영되어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다큐멘터리에 담긴 이데올로기가 하이모더니즘적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주체, 지향, 동원, 지식’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리고 결론부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이전과 다른 형태의 하이모더니즘이 국가 차원의 사회관리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상현의 논문 「녹색성장 경관의 생산과 소비: 4대강 살리기 사업 홍보 동영상 분석을 중심으로」는 경관이론 연구의 전통 속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추진되었던 4대강 사업을 분석한 연구이다. 저자는 경관이 가진 이데올로기적 속성과 ‘경관의 통치성’(government) 이론에 주목한다. 경관의 이데올로기성과 통치성 이론은 경관이 마치 ‘주어진 것’, 혹은 ‘자연적인 것’으로 보이게 하는 속성들을 제거하고, 경관이 특정한 담론들에 의해 이데올로기적 속성을 갖게 되며, 일정한 취향, 감각, 태도를 강요하도록 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능을 한다. 또한 저자는 ‘국가-자연’ 논의도 참고하였다. ‘국가-자연’은 국가에 의해, 혹은 국가 안에서 다양한 행위자들에 의해 생태적 맥락이 제거된 추상화된 자연을 의미한다. 저자는 “4대강 사업은 국가 주도로 4개의 주요 하천을 ‘국가-자연’으로 만드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 논문에서는 ‘틀 짓기’ 전략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홍보 자료, 홍보 동영상이 활용되었다고 판단하며, 이러한 판단하에서 홍보 자료와 홍보 동영상이 4대강을 일종의 ‘녹색성장 경관’으로 생산하였으며, 이러한 경관을 소비하도록 만들었다고 가정하였다”고 한다. 여기서 녹색성장 경관이란 “녹색성장전략”을 물질적으로 또 상징적으로 구현하는 표상인 동시

에, ... 통치로서 헤게모니 전략을 수행하기도 하는 경관을 의미한다". 저자는 이러한 가정하에서 정부가 제작한 4대강 살리기 사업 홍보 동영상과 이를 비판하거나 반박하는 동영상을 분석하였다. 동영상 분석을 위해, 홍보 동영상에 사용된 주요 담론, 서사의 구조, 주요 이미지를 분석 요소로 설정하고, 홍보 동영상에서 주로 다루는 주제들을 수질 오염, 홍수 조절, 가뭄, 지역경제와 문화 등의 주제로 구분하여 각 주제별로 녹색성장 경관이 어떤 식으로 생산되었는지를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홍보 동영상은 반복적으로 정비가 잘된 발전주의적 하천 경관을 과거 문제가 많은 하천경관과 대비시켜 지역경제도 성장시키고 하천이라는 환경도 살리는 '녹색성장 경관'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하였다. 한편, 이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흐르는 물을 보를 통해 정체시키면 수질이 악화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원론에 입각해 저항 담론이 지식인들, 시민단체 등에서 만들어졌고... 저항 담론과 더불어 녹색성장 경관의 모순을 드러내는 동영상이 제작되고 유포되었으나, 인적 자원이나 물질적 자원에서 현저히 취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영향력은 미비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녹색성장 경관의 모순은 '녹조라떼'로 뒤덮인 하천 경관이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대중적으로 확산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수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다는 메시지를 던져주었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김준수의 논문 「한강의 생산: 한국의 발전주의 도시화와 인간 너머의 물 경관」은 발전주의 도시화라는 맥락 속에서 국가의 축적 전략과 헤게모니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한강이 생산되는 과정을 탐구한 연구다. 이론적으로는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NT)과 '국가-자연' 논의에 기대면서, '인간을 너머선 접근'(more-than-human approach)을 시도하고 있으며, 하상계수, 구조물, 습지, 수위 등 비인간 행위자들의 능동적 행위와 인간 행위의 경합으로 한강의 생산 과정을 분석한 점에서 기존의 연구들과 두드러진 차이를 보인다. 저자에 의하면 한강의 생산 과정은 발전국가가 추진한 '국가화된 자연'을 넘어서서 한강의 물질적

특성이 발현되는 과정과 동반해서 나타난다. 저자는 높은 하상계수를 나타내며, 홍수에 의한 범람도 빈번하게 일어났던 한강에 국가가 개입하여 여의도 개발, 강남 개발 등을 통해 특정하게 ‘영역화’시켰다고 주장한다. 또한 한강 하류가 북한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만큼, 한강에는 안보라는 주제하에 다양한 물리적·사회적 경계가 만들어지게 된다. 이처럼 자본축적을 위한 자원인 동시에 보이지 않는 국경으로서 한강에는 국가에 의해 1960년대부터 각종 비인간들(인공구조물들)이 설치되었고, 1980년대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을 계기로 ‘한강종합개발계획’이라는 메가 프로젝트도 진행되었다. 하지만, 국가에 의해 배치되었던 이 비인간행위자들은 의도와 다른 결과를 초래하였다. 잠실수중보와 신곡수중보로 인해 일종의 호수가 된 한강의 수질은 악화되었고, 하류에는 장항습지라는 새로운 비인간 행위자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발전국가 한국은 새로운 형태의 도시계획과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즉, 한강의 생산 과정은 기존의 학문분과에서 주장하듯이 자본축적의 의도라든가, 도시계획의 의도된 결과로 해석할 수 없고, 다양하게 배치된 비인간들의 행위성 발현을 통해 혼종적인(hybrid) 형태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저자는 한강이라는 경관을 인간과 비인간의 결합 구도 속에서 형성되어 가는 공간으로 접근하면서, 향후 발전주의 이후의 물 경관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론적 단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세 편의 논문이 동아시아 발전국가들의 수자원 개발이 가진 다양한 측면을 모두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가-자연’ 생산 과정이 지닌 이데올로기적 속성과 헤게모니 투쟁의 치열함, 그리고 비인간 행위자가 참여한 혼종적 과정이었음은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또한 수자원개발의 이데올로기 분석에서 이미지 혹은 경관 등이 가진 중요성도 부각시켜주었다. 이번 특집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향후 일본과 북한 등의 수자원개발에 대한 연구가 더 보완된다면, 동아시아 수자원개발의 정치생태학이 풍부하게 논의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 많은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김준수. 2019. 한강의 생산: 한국의 발전주의 도시화와 인간 너머의 물 경관. 《공간과사회》, 제29권 1호.
- 박철현. 2019. 다큐멘터리 <다싼샤大三峡>와 현대 중국의 하이모더니즘. 《공간과사회》, 제29권 1호.
- 이상현. 2019. 녹색성장 경관의 생산과 소비: 4대강 살리기 사업 홍보 동영상 분석을 중심으로. 《공간과사회》, 제29권 1호.